

한국 만화시장 실세는 일본만화

표절·번안·번역·직수입 통해 들어와

일본만화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번역 소개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다. 정확하게는 91년 3월 1일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외국 만화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외국 만화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심의 이유였다. 외국만화에 대한 심의라고는 하지만 심의 대상은 대부분 일본만화였다. 심의 시작 이후 6개월간 일본만화에 대한 심의 요청은 모두 12건. 이 가운데 9편은 보류 처분을 받았으나 3편은 심의를 통과했다.

《타터 슬럼프》《쿠후 삼국지》《베르사이유의 장미》 등 심의를 통과한 세편의 일본만화는 '심의필' 도장을 달고 전국의 만화가계와 만화방으로 진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만화인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무단 복제를 통해 몰래 거래되었던 일본만화에게 정부 당국이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거였다.

70년대 일본만화의 번안물 인기

일본만화가 한국만화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온 것이 현실이다. 때로는 표절의 형태로 때로는 번안의 형식으로 일본만화는 한국의 만화독자에게 다가왔다. 60년대 후반 창간된 어린이 잡지들도 앞을 다투어 일본만화의 번안물을 연재했고, 어린이 독자들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황금박쥐》《요괴인간》《타이거마스크》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70년대의 번안만화는 스포츠를 소재로 한 것이 많았다. 고교 야구를 소재로 삼은 《태양을 쳐라》는 '황금사자기'나 '청룡기' 대회보다는 '갑자원' 대회나 '고시엔' 야구장을 무대로 했음이 분명하다. '헝그리 북서'《도전자 하리케인》도 '유제두' 선수보다는 '와지마 고이치'에 더 가까웠다. 자전거 경주가 소재인 《페달을 밟아라》의 배경이 되는 자그마한 항구 역시 일본 소도시의 분위기가 짙게 풍겼다.

그래도 그때의 어린이 독자들은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만화에 흠뻑 빠졌다. 《태양을 쳐라》의 장철·장웅 형제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에서 자란 의좋은 형제로 보였다. 고아원에서 함께 유년기를 보낸 백만리(하리케인)와 최도천이 권투선수로 만나 운명의 대결을 펼치는 《도전자 하리케인》은, 인기에 힘입어 속편 《챔피언 하리케인》이 나올 정도였다. 《태양을 쳐라》와 《하리케인》은 일본만화가 우리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되는 연유를 알려준다. 그것은 이들 만화가 철저하게 "아기자기한 사람 중심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한편, 국내 작가에 의한 스포츠만화는 7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두호의 《폭풍의 그라운드》는 축구를 소재로 했고, 박수동의 《번데기 야구단》은 동네 야구팀이 세계 리틀야구대회에 나가

우승하는 내용이다. 고우영의 《대야망》은 무술인 최영의씨의 일대기를 극화했다. 80년대는 《캔디》의 시대였다. 문학사적인 비유를 들자면, '장한몽'의 시대가 저물고 '빙점'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일본만화의 수용은 번안에서 번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후 번역된 일본만화들은 우리 만화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문화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한국문화 전반에 영향력 행사

만화평론가 한창완씨는 《한국만화에 나타난 일본만화의 표현방식 및 내용의 유사성》(간행물윤리위원회, 1997)이라는 논문에서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 국내에 소개된 만화 5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드래곤 볼》은 공식수입만화로는 최초로 대성공을 거두며 국내 만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스포츠만화의 전형으로 꼽히는 《슬램덩크》 역시 장기 연재물의 특성을 갖고 있고, 앵글의 묘사와 프레임의 연출면에서 국내 만화에 영향을 주었다. 만화 외적으로는 청소년들 사이에 농구붐을 조성했으며, 프로농구의 출범에도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Let's go 이나중 탁구부》는 포스트모던한 발상이 돋보이고, 《침묵의 함대》는 불법복제를 통해 한 세대에 걸쳐 국내 만화가 지망생의 데생 모델이 되었다. 《짱구는 못말려》는 《드래곤 볼》과 《슬램덩크》 이후 국내

만화시장의 공동화를 막은 최근의 히트작이다. 캐릭터는 어린이지만 표현양식과 대상은 성인물인 탓에 심의의 주된 표적이 되었다.

불법 복제만화를 포함한 일본만화가 국내 만화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관측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불법 복제만화의 규모는 1,800억원대로 추정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방안 연구문화체육부, 1997). 불법 복제만화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본만화 수입의 물꼬가 트이자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만화들이 잇달아 소개되었고, 인기몰이는 한국에서도 재연되었다. 90년대 초반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일본만화가 한국만화를 제치고 순위를 독점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본만화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대중문화는 국적이 없다

그렇지만 일본만화는 아직도 꾸준히 읽히고 있다. 5월11일 창간한 만화 소식지 《만화채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만화와 일본만화를 1대1의 비율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쪽이 더 재미있는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0%가 일본만화를 꼽았다. 일본만화의 재미는 특유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힘입은 바 크다. 때문에 우리 청소년에게 끼치는 일본만화의 해악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일본만화 탐독이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일본만화에 대한 비난은 만화 자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화의 정체성에 관한 논란은 '굴뚝없는 공장'으로 표상되는 만화의 산업적 고려와는 배치되는 것 같다. 만화평론가 손상익씨는 "대중문화의 세계적 추세는 '무국적성'이다. 에반겔리온의 캐릭터만 해도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캐릭터들의 장점만을 따서 만들었고, 그래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한국만화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면 "역사극밖에 더 남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성일>



일본 만화의 수용과정은 표절과 짜깁기, 그리고 번안에서 번역으로 탈바꿈한다. 일본만화 수입의 물꼬가 터지자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만화들의 인기몰이가 한국에서도 재연됐다. 이후 번역된 만화들은 만화계는 물론,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